

# בֵּית ספר (책의 집)

##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한동일 씀, 인티



우리 삶에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크고 작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앞에서 주님도 우리처럼 번뇌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면서 때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약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 저는 그가 좋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실제로도 자신을 내려놓았지만, 인간인 저는 제 뜻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마음이 평화로울 수 없는데, 그 때문에 거짓 평화를 갈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마주하는 시간은 어두운 밤을 보내는 것과 같고, 그 시간을 인내하고 자기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일은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고통을 서둘러 외면한 채 술과 수다, 취미 같은 것으로 그 고통을 덮어버리고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느끼는 마음의 갈등 없음이 바로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진짜 평화에 이르는 길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누가복음 12:51)



제51권 32호

2025년 8월 10일(성령강림절 후 아홉 번째 주일)

###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일과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아홉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2. 배움주일:** 8월은 쉬어갑니다.
- 3. 예배당 보수공사 안내:** 가을에 진행할 예배당 지붕 보수공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감사한 일이나 가정의 애경사 시 '오병이어 건축헌금'을 활용해주기 바랍니다.(예산 약 2,000만 원)
- 4.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 구절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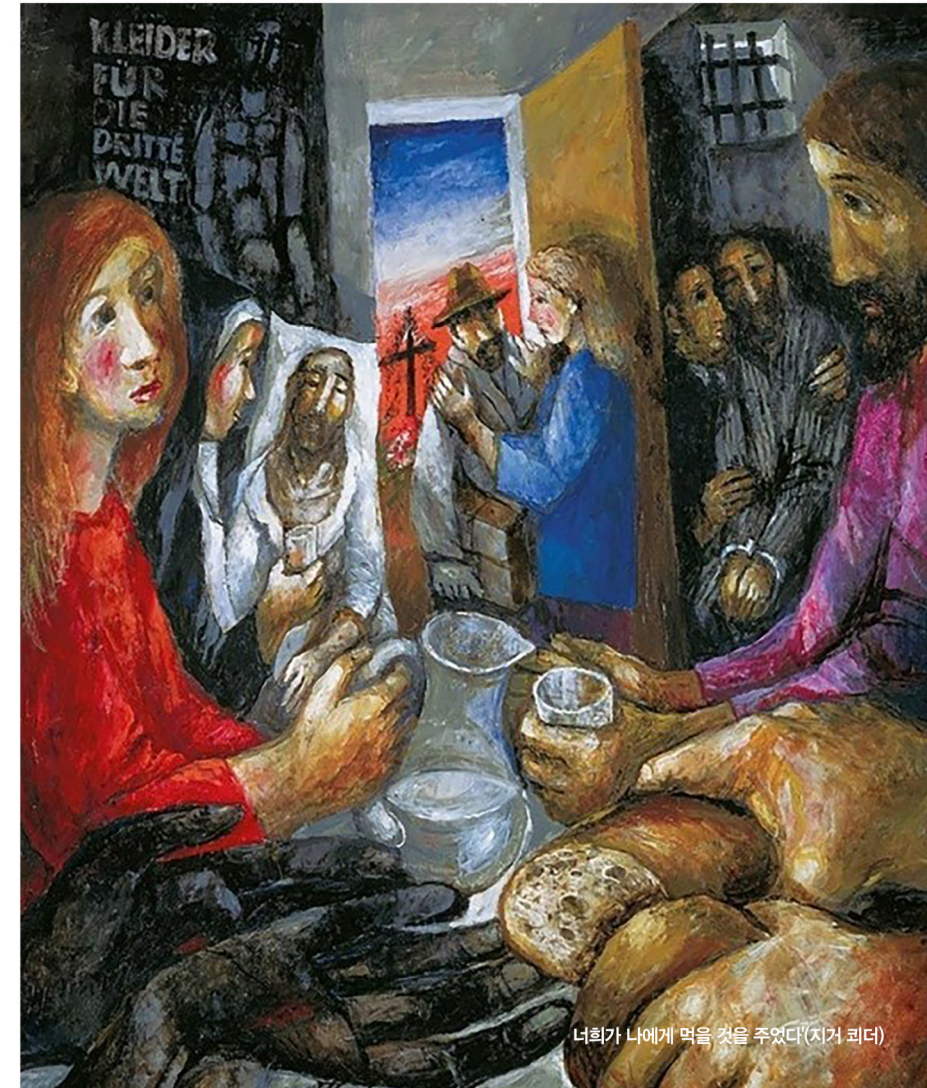
##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선교회	연령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본당	아브라함	남성교우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소예배실	에스터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예배실	드보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전 9시	소예배실	마리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전 9시	청소년부실	하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교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겨 꾀더)

# 주일예배 (성령강림절 후 아홉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께
* 입례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요한계시록 4.8, 11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광송	61장(2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시교독	시편 33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사찬송	319장(2절 후, 간주)
기도	민경오 장로
* 성경봉독	창세기 15.4(구약 17쪽)
찬양	빈 들에 마른 풀같이
말씀선포	“보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결단의 찬송과 기도	331장(2절 후, 간주)
봉헌	함께
성도의 교제	함께
* 교제의 찬양	382장(1절)
* 축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다음 주기도 - 장세중 장로

- \* 8월 안내위원 : 신대심, 손양선, 박선례, 최형미
- \* 8월 헌금위원 : 김인수
- \* 8월 주방봉사 : 9, 6구역

## 생명의 말씀



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이 자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창세기 15.4/히브리어 직역 성경)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This man will not be your heir,  
but a son who is your own flesh and  
blood will be your heir.”(NIV)

##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 송 혁 목사
찬양	함께
기도	신은혜 집사
성경봉독	스가랴 2.13(구약 1314쪽)
말씀선포와 기도	쉴!
축도	송 혁 목사

## 다음 주기도 - 강은진 권사

## 일상기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14일(목)	스가랴 8.14-23
11일(월)	스가랴 6.1-15	15일(금)	스가랴 9.1-8
12일(화)	스가랴 7.1-14	16일(토)	스가랴 9.9-17
13일(수)	스가랴 8.1-13	17일(주일)	스가랴 10.1-12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 지난주일말씀

## 영원과 순간 사이에서

(전도서 1.2)



[성서일과표/전도서 1.2, 12-14, 2.18-23, 시편 49.1-12, 골로새서 3.1-11, 누가복음 12.13-21]

얼마 전 잠언에서 올려 퍼지는 지혜의 외침을 들으면서, 성서에는 전통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지혜를 대표하는 책이 잠언이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성적 지혜를 대표하는 책이 욱기와 전도서입니다. 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전통적 지혜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고난이 찾아왔지요.

욕기는 선악 이분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욱기는 욱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제기하는 것처럼 **깨달 없는 신앙**이 기동한가를 묻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대로 열매를 주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느냐는 물음이지요.

욕기는 욱의 고난에 대한 차츰지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전통적 지혜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 틀에 매여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욱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눈에 어리석은 자로 보일 뿐이지요. 욱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선하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강조합니다.

전도서는 어떤 지혜를 전할까요? 전도서의 첫 번째 외침이 이 책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정녕 헛되고 정녕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짧은 문장은 ‘헛되다’라는 단어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인건이나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인건이며 인생도 속임수니’**라는 선언에서 볼 수 있듯,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영원의 반대 개념입니다.

헛됨을 이해할 수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헛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두 헛되고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면 전도자가 삶의 지혜를 역설하는 것도 헛되고 헛된 일이지요.

지혜자는 **“하늘 아래 새것이 있을 리 없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의 사계절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리듬의 불변성과 절대주권에 대한 진술입니다. 지구의 손바닥은 우리는 이 리듬을 바꿀 흔적도 기억할 만한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영원과 순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지혜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 하라고 권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건물로서의 교회는 이미 사라지는 중입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우리 교단 총회 교세통계위원회가 지난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약 9,400개 교회 가운데 100명 미만인 교회가 72.4%, 30명 미만인 교회도 41%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고령화와 교세 감소로 우리도 30명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복음과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신 복음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핵심 기능은 예배입니다. 건강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교구의 색깔과 내용을 입힌 주일예배와 성찬 예식이 있고, 독특한 형식과 내용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사라질 수 있지만 복음과 예배는 헛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지혜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대신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번 주 성서 시편 49편을 기도문으로 바꾸어보았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지혜는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자신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에 있다가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절에서 평등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생명의 길을 비방하는 자들의 조롱과 힘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대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홀쭉하게 살고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은 양처럼 스물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나,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스물의 세력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순간에서 영원을 살면서 죽음을 땅에서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과 순간을 연결하고 죽음과 삶을 이어 붙이며 하늘과 땅을 동시에 딛고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살람.